
연결재무제표정보공시제도의 유용성 분석

Benefits of the System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formation Disclosure

박상봉

동의대학교 회계학과

Park Sang-Bong(parksb@deu.ac.kr)

요약

연결재무제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기업의 해외자금을 조달과 외국인 투자기업 국제적기업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본 논문의 연결재무제표정보공시에 따른 분석결과는 첫째, 감사의견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신뢰하고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이 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개별재무제표를 보조 재무제표로 하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국제회계기준로드맵에 의하여 2009년부터 국내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셋째, 연결손익계산서 대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미국은 1917년, 일본은 2002년 연결납세제도 도입).

■ 중심어 : | 연결재무제표 | 결합재무제표 | 연결납세제도 |

Abstract

For global companies that are going to raise funds from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or to which lots of foreign investment are being given,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provides the results of some analyses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isclosure. First, disclosing those statements with audit opinion reflected would provide useful reliable and financial information. Second, such disclosure as foresaid would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e used as main financial statements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s auxiliary ones. The disclosure system would make it possible for domestic corporations to introduc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earlier, especially from 2009, in accordance with the road map of those standards. Third, the system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isclosure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consolidated taxation systems under which corporate tax is levied in accordance with consolidated balance sheet.

■ keyword : |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 Consolidated Tax Payment a System |

* 본 논문은 동의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비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71206-001

접수일자 : 2007년 12월 06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1월 24일

교신저자 : 박상봉, e-mail : parksb@deu.ac.kr

I. 연구의 목적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활동이 다양화되고 기업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계열화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계열화된 기업들이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활발한 내부거래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집단에 소속된 개별 기업의 개별재무제표만으로는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라는 관점에서 기업집단 전체의 통합된 재무제표, 즉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연결회계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연결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기업집단이라는 경제적 단위의 차원에서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 채권자의 여신 의사결정, 경영자의 경영관리 목적을 위한 의사결정, 정부의 기업규제 등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기업이 국제자본시장에서 해외자금을 조달하거나 외국인 투자비용이 높은 국제적기업에게 더욱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3월 증권거래법령을 개정해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 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상 전체 내용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분기와 반기보고서에 대한 연결공시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¹⁾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의 이론적 배경 및 종류를 비교설명하고, 공시된 상장법인, 코스닥법인의 2004, 2005, 2006년 3년동안 연결재무제표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연결전과 연결후의 분석정보가 유용한 정보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감사의견의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 내용은 정책결정자, 투자자, 정보제공자 입장에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투자자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수익성 평가·예측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연결이익의 정보유용성 여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연결이익은 지배회사 고유 사업의 이익과 종속회사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연결이익의 '충분적' 정보유용성 문제는 지배회사 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종속회사 이익의 정보유용성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위험 평가를 위한 연결부채의 금액과 연결부채비율의 정보유용성 여부가 실증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 분석은 연결전 대 연결후의 주채무제표 선택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결부채비율의 정보유용성 문제는 종속회사의 부채가 지배회사 주식의 투자위험 평가에 유용한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배회사의 고유적 부채와 종속회사 부채가 모두 정보유용성을 가질 때, 즉 연결전과 연결 후 연결부채비율의 정보유용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부감사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가 제출된 유가증권시장 법인과 코스닥시장 법인중 감사의견이 유용성이 있는 지를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확인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가 주된 재무제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II. 연결재무제표 이론적 배경

1.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는 개별기업이 일정기간 기업의 경영성적·재정상태를 기록·계산한 회계보고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화폐가치로 기록·계산하고, 일정기간 기업의 노력과 그 성과(경영성적),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부채 및 기업자본의 재고(재정상태)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보고서이다. 즉 주식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경영실태를 공개·보고할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회계의 보고기능과 공개원칙의 준수가 재무제표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부기록만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습·판단의 종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때로는 공정성·타당성을 상실하여 경영실태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계원칙이

1) 금융감독원 2007.9.10 보도자료

필요하다.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식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가운데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3가지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의 재무제표도 이와 같으나 제조활동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부속명세서로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첨부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제조업의 경우 이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도록 규정하며,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내는 등록서류에 재산상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³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조직체로 보고, 지배회사(모회사)가 회사들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 등을 밝히기 위하여 작성하는 여러 가지 서류. 연결대차대조표·연결손익계산서·연결자본변동표·연결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된다. 모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견권 과반수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자회사는 그것을 소유당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칙적으로 모회사와 모든 자회사가 연결의 대상이 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연결회사 상호간의 채권·채무와 내부매출·내부매입은 상쇄되고, 모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자회사의 자본계정이 상쇄되며, 또 기말 결산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이익도 제외된다. 개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실질적 경영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집단은 계열회사간의 상호채무보증,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자금대차 및 계열회사간의 상호의존적인 거래 등을 통하여 한 계열회사의 위험이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의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경제적 공동운명체를 형성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는 단일의 경제적 실체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간에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만으로는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을 파악할 수 없다. 연결재무제표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

집단결합재무제표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소유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지배력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합재무제표는 그 이용자가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등에 관한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²

2. 연결재무제표 정보 공시 따른 선행연구

2.1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필요성에 대한 주장

이광제(2001)은 도입을 찬성하는 연결그룹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작성이 필수적이다. 국제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공시 없이는 외국자본의 사업활동 장으로 선택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회계연구원(2003)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연결재무제표의 공개초안과 함께 공개된 연결재무제표 주요논점을 보면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³ 첫째,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보다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나타내고 따라서 더 유용한 일반목적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상에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정보는 연결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가 되지 못한다. 둘째, 지배회사의 채권자는 법적 채무가 표시되는 개별 재무제표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지배회사의 채권자는 오히려 내부거래에 의한 채권채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이며 지배회사가 지배하는 연결실체 전체의 자산과 부채 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채권자의 관심사인 채권의 담보력과 회수 위험 및 신용상태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단일체인 연결실체의 재무정보가 더 의미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은 연결재무제표가 필요하며,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가 지배회사의

2 고급회계, 김영덕, 출판사다인, p.447.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공개초안 문단 A11 및 동 주요논점1

개별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유용한 정보인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별로 없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연구의 대부분은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 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가지는 지 여부를 검증하는 연구였다.

정규언(2005)은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현행의 공시제도를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하여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와 함께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대한 설문조사는 현재의 상황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모든 공개기업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된 이유는 현재의 상황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내에 작성·감사하여 공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시행시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9%만이 단기간(2005년 이전)내 시행에 동의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응답자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시행(40%)을 찬성하거나, 2010년 이후부터 시행 또는 시행에 반대(41%)하고 있다. 셋째,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대하여 기업의 필요를 무시하고 강제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추진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이다. 넷째,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는 필요성이 크고, 인프라가 갖추어진 공개기업 중 국제화된 기업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고,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 외의 공개기업과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일정 기간 이후에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경우, 개별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은 일단은 현재와 같이 별도의 재무제표로 공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설문조사시에 주된 이용자인 투자자의 집단을 설문조사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른 유용성과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2.2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반대하는 주장

한국회계연구원(2003)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연결

재무제표의 공개초안의 내용중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반대하는 주장은 주로 실무에서 제기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첫번째 사항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기를 현재보다 30일 앞당겨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전에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모두 완성하여 감사를 마쳐야 하고, 이를 통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가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말 경에 완성되는 자회사가 상당수인데, 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동일 기간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를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양세영(2002)은 “전산시스템 미비, 자회사의 결산 지연 및 취합의 어려움 등 결산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 제출시킨 단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고 있다.

정규언(2005) 설문조사 결과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현재로서는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기업 임직원 응답자 중 49%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받아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시간과 감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둘째 분기재무제표의 공시와 관련된 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대한 현재의 안은 분기와 반기재무제표도 연결재무제표로 공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의 감사는 지배회사 감사인이 모든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종속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분기와 반기재무제표의 검토·공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연결 분기·반기재무제표의 검토를 위하여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작업을 해야 한다.

2.3 외국 선행연구

Bhushan(1989).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전정보의 공시가 요구되고 더 많은 재무분석가들이 분석자료를 내놓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기업의 이익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에 기초하여 투자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실제 이익이 발표되어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Freeman(1987)은 기업의 투자자들이 사전정보에 근거하여 이익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는 이익정보를 미리 반영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실제이익이 발표되었을 때 대기업의 주가는 소기업보다 오히려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론적으로 가능성 일 뿐 실증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우나 복잡하고 독특한 소유구조를 가진 재벌이 존재하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가설이 가능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는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에 따른 주가의 반응과 설문지에 의한 정보이용자들의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을 연구한 반면, 본 연구는 상장기업, 코스닥기업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III. 연결재무제표의 연구방법과 분석

1. 연구의 모형

외감법시행령 제1조 및 연결재무제표준칙에 의해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가 정책결정자(금융감독원, 국세청), 투자자(주주, 금융기관), 정보제공자(경영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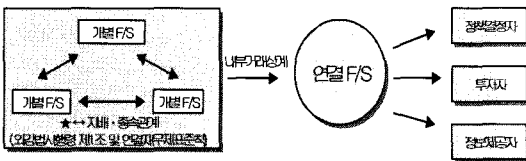


그림 III-1. 연구의 모형

2. 연구대상

[표 III-1] 같이 2004년, 2005년, 2006년도 연결재무제표가 제출된 유가증권시장 법인과 코스닥시장 법인인 중 연결재무제표 중 감사의견중 비적정, 결산기 변경, 금융업종, 지주회사를 제외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III-1. 유가증권, 코스닥 12월결산법인 2004년, 2005년, 2006년도 분석 대상 업체 현황

(단위 : 법인체 수)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유가 증권	코스닥	유가 증권	코스닥	유가 증권	코스닥
연결재무제표 제출 법인	327	178	346	194	369	245
분석대상법인	300	161	318	182	340	225
분석대상제외 ⁴	27	17	28	12	2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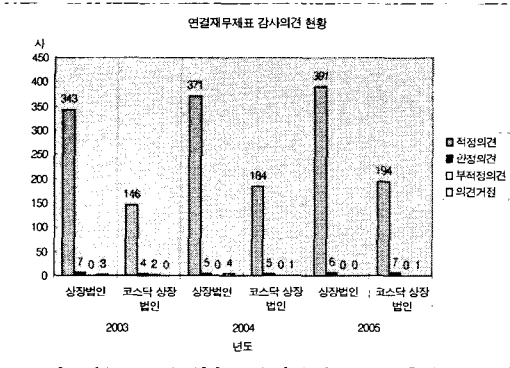
3. 연결재무제표의 분석

3.1 연결재무제표 감사의견 분석

[표III-2]와 같이 외부감사대상회사의 2005년 연결재무제표 감사의견 중 적정의견은 92.5%로서 2003년의 92.7%, 2004년의 93.8%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한정 의견, 부적정의견 및 의견거절의 비율은 6.2%에서 4.8%로 감소하는 등 연결재무제표 감사의견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이하 의견을 받은 회사의 주된 사유는 해외종속회사의 감사 미실시에 의한 감사범위제한 때문으로 총 한정 의견 사유중 33.3% 이상을 차지하나 그 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감사의견 비적정, 결산기 변경, 금융업종, 지주회사 등

표 III-2. 연결재무제표 감사의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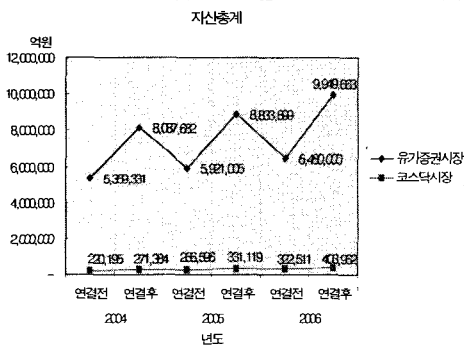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2. 연결재무제표의 재무상태 분석

2.1 연도별 총자산 연결 전·후 분석

유가증권시장 2004년도 총자산은 연결전보다 50.9%, 2005년도 연결전후전보다 49.2% 2,728,351억원이 증가, 2006년도 연결전보다 53.5% 3,469,663억원이 증가 되었다. 코스닥시장 총자산은 2004년 연결전보다 23.25% 51,186억원이 증가, 2005년 연결전보다 24.2% 51,013억원이 증가, 2006년 연결전보다 25.3% 66,75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연결재무제표 전·후 연도별 자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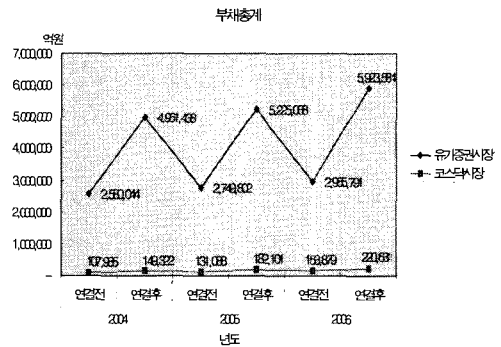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2.2 연도별 총부채와 부채비율 연결 전·후 분석

[표 III-4], [표 III-5] 같이 유가증권시장 총부채비율은 2004년 연결전 92.83%보다 연결후 158.7%로 65.87%증가한 2,381,394억원, 2005년도 연결전 8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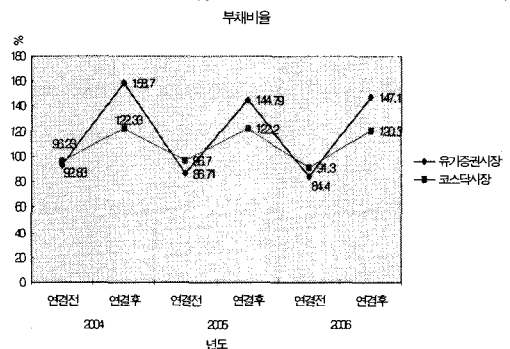
전보다 144.79%로 58.07% 증가한 2,475,266억원. 2006년도 연결전84.4% 연결후 147.1%로 62.7% 증가한 2,956,793억원이 되었다. 코스닥시장 총부채비율은 2004년 연결전96.23% 연결후 122.33%로 26.1%증가한 41,337억원, 2005년 총부채비율은 연결전96.7% 연결후 122.2%로 25.5%증가된 51,013억원, 2006년도 연결전 91.3% 연결후 120.3%로 29.1% 증가한 66,752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연결재무제표 전·후 연도별 부채총액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표 III-5. 연결재무제표 전·후 연도별 부채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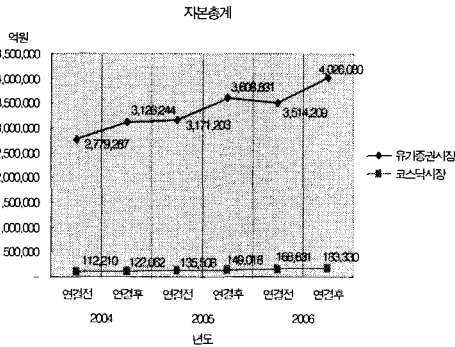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2.3 연도별 총자본 연결 전·후 분석

[표 III-6] 유가증권시장 2004년도 총자본은 연결전보다 12.48% 346,957억원이 증가, 2005년도 연결전후전보다 13.8% 437,628억원, 2006년도 연결전보다 14.3% 511,871억원이 증가되었다. 코스닥시장 총자본은 2004

년 연결전보다 8.78% 9,852억원, 2005년 연결전보다 10.0% 13,510억원, 2006년 연결전보다 8.7% 14,699억원이 증가 하였다.

표 III-6. 연결재무제표 전·후 자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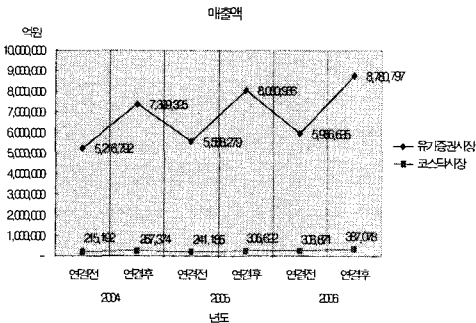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3. 연결재무제표의 재정상태 분석

3.1 연도별 총매출액 연결 전·후 분석

[표 III-7] 유가증권시장 2004년도 총매출액은 연결전보다 41.84% 2,182,533억원, 2005년도 연결전후전보다 44.25% 2,472,657억원, 2006년도 연결전보다 47.2% 2,814,162억원이 증가되었다. 코스닥시장 총매출액은 2004년 연결전보다 24.25% 52,182억원, 2005년 연결전보다 27.2% 65,437억원, 2006년 연결전보다 25.3% 78,207억원으로 전체적인 증가를 하였다.

표 III-7. 연결재무제표 전·후 연도별 매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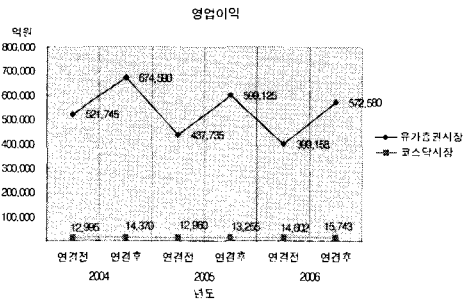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3.2 연도별 총영업이익 연결 전·후 분석

[표 III-8] 유가증권시장 2004년도 총영업이익은 연결전보다 29.29% 152,845억원, 2005년도 연결전후전보다 36.87% 161,390억원, 2006년도 연결전보다 43.4% 173,422억원 증가되었다. 코스닥시장 총영업이익은 2004년 연결전보다 10.58% 1,375억원, 2005년 연결전보다 2.3% 295억원, 2006년 연결전보다 7.8% 1,141억원이 증가를 하였다.

표 III-8. 연결재무제표 전·후 연도별 영업이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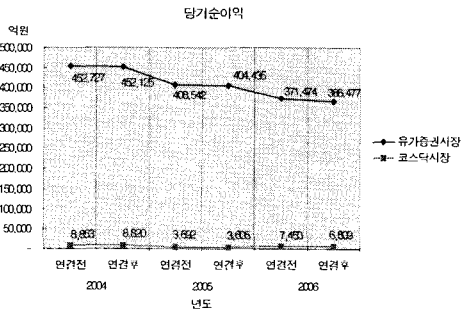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3.4 연도별 총당기순이익 연결 전·후 분석

[표 III-9] 유가증권시장 2004년도 총당기순이익은 연결전보다 0.13% 602억원 감소, 2005년도 연결전후전보다 1.01% 4,107억원 감소, 2006년도 연결전보다 1.3% 4,997억원이 감소되었다. 코스닥시장 총당기순이익은 2004년 연결전보다 0.37% 33억원 감소, 2005년 연결전보다 2.4% 87억원 감소, 2006년 연결전보다 8.6% 641억원 전체적인 감소를 하였다.

표 III-9. 연결재무제표 전·후 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V. 시사점과 한계점

연구의 결과 연결재무제표 감사의견의 추세가 적정 의견이 증가되고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이 감소 추세가 확인됨으로 연결재무제표공시가 신뢰성이 증가되어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재정상태 분석에 있어서는 특히 연결전과 연결후의 부채비율을 증가되는 결과는 정보이용자들에게 중대한 자료가 된다. 경영성과의 결과는 향후 도입해야는 연결납세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의 비율이 차이가 연결전과 연결후에 큰 변화가 없는 결과를 얻으므로써 세수확보 문제를 거론하며, 도입을 미루고 있는 과세당국에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1. 시사점

첫째, 기업의 재무제표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의견 등이 연결기준으로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이 반영된 재무제표를 주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실체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재무정보를 적시에 제공이 가능하며,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 중에서 외국자본시장의 자본에 의존하는 기업은 해외자본조달이 용이 할 것이다. 둘째,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개별재무제표를 보조 재무제표로 하는 국제적 정합성에 적합하게 된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국제회계기준로드맵에 의하면 2009년부터 국내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셋째, 법률적으로 독립된 실체이지만 경제적으로 단일의 실체로 볼 수 있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즉, 기업집단내 개별기업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내부미 실현이익을 제거하는 등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과세하는 그룹과세인 연결납세제도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한계점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연결재무제

표의 유용한 정보능력은 법적 형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체에 바탕을 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고, 연결재무제표는 개별회사와 이해관계자들간의 법적 상호관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입장 한계는 투자자(주주)는 배당금분배를 위한 이익잉여금의 배당가능성에 대해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 연결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은 반드시 개별기업의 투자자에게 배당가능한 것이 아니다. 개별회사 중에는 순손실이 생겨 배당을 못 받게 되지만 연결재무제표상에 순이익이 많이 계상되어 배당가능이익이 많은 것처럼 오인될 수도 있다. 이익배당은 연결재무제표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재무제표에 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배당정책을 세우거나 배당금을 예측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입장에서의 한계 채권자의 청구권도 개별기업에 대한 것이고, 경제적 단일체로서 지배회사에 대한 것은 아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부채의 단순한 합산은 각 개별채권자가 특정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모호하게 할 뿐이다. 각 개별기업의 채권자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자산에 대해서 청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별기업의 자산에 대해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유동부채, 고정부채는 채권자에게 기업의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혼동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연결회사 중에는 자금능력이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중화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또 차입계약에 따라서는 유동비율 등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요구된 유동비율을 지키고 있는지, 또는 채무지급불능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연결재무제표로부터는 알 수 없다. 이것도 채권자의 권리가 개별재무제표의 자산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속회사의 소수주주입장에서의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된 계정은 개별기업의 계정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수주주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다. 소수주주는 그들이 투자한 개별 재무제표상의 순자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지배회사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투자한 자원에 관련된 법률적 실체에 대해서만 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수주주에게는 개별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보다 더 의미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이다. 재무분석가입장에서는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초로 한 통계적 분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재무비율의 분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지배·종속회사의 계정을 단순히 통합함으로써 계산된 재무비율은 여러 기업의 계정과목을 단순히 합산한 가중평균치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분석에 흔히 이용된 비율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비율분석의 문제는 최고경영자나 기업주의 지배권, 의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일 최고경영자의 지배권이 강력하여 연결회사간에 자원을 마음대로 이전시킬 수 있으면 연결재무제표상의 재무비율은 정확한 것이 된다. 그러나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를 기업집단 내의 투자로서 중요시할 수도 있고, 또한 일시적인 투자로 여겨 중요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재무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별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지배 종속회사의 업종이 각각 다른 경우 연결재무제표상의 각 자산계정은 재무분석가에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연결재무제표의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에 부동산회사의 토지, 화학공업회사의 화학약품, 증권회사의 증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재고자산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의 한계점은 유가증권시장 법인과 코스닥시장의 법인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이다. 비상장법인의 지배·종속관계인 연결재무제표를 본 논문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의 비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참고 문헌

- [1] 김광윤,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구조 비교연구", 세무학연구, 제19권, 제2호, 2002.
- [2] 김권중, 나인철, "지분법회계와 연결재무제표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4호, 2002.
- [3] 김권중, 남상오, "연결회계정책 정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18호, 1994.
- [4] 김영덕, 고급회계, 출판사다임, 2007.
- [5] 김종대, "연결재무제표 공시와 역기업규모 현상", 경영학연구, 제29권, 제2호, 2000.
- [6] 김종철, "연결납세제도 기본구조의 시안", 공인회계사, 2003.
- [7] 금융감독원(<http://fsc.go.kr>) 회계자료실, 2007.
- [8] 나원호, "연결재무제표의 공표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13집, 1999.
- [9] 박성환, "연결회계자료의 정보효과", 경영학연구, 제42권, 1995.
- [10] 양세영, "회계제도개혁안의 문제점과 과제", 월간 전경련, 2002.
- [11] 오윤택, 정규언,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 방안", 회계와 감사연구, 제37호, 2001.
- [12] 이광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31권, 제5호, 2002.
- [13] 이석준,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자료, 2003.
- [14] 이정재, "경영투명성 제고와 감사인의 역할", 공인회계사, 2003.
- [15] 신현걸, 이만우, "지분법 적용시 연결재무제표정보의 유용성", 세무와 회계저널, 제3권, 제1호, 2002.
- [16] 정규언,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및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협의회, 2003.
- [17] 정성빈,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의 정보효과", 회계학연구, 제19호, 1994.
- [18] 증권선물거래소. 보도자료, 2007.
- [1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도자료, 2007.
- [20] 한국회계연구원,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2003.

[1] 김광윤,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 [21] 황인태,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0권, 제2호, 1995.
- [22] A. Beatty and H. David, "Intra-Group, Interstate Strategic Income Management for Tax, Financial Reporting, and Regulatory Purposes," The Accounting Review, Vol.76, No.4, pp.515-536, 2001.
- [23] Bhushan and R. S. Matthew, "Consolidated charitable deductions," The Tax Adviser Vol.30, No.11, 1989.
- [24] FASB, Statement, Consolidation of All Majority-owned Subsidiaries, No.94, 1987.
- [25] FASB,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Purpose and Policy(Proposed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1999.
- [26] FASB, Consolidation of Variavle Interest Entities-a modification of FASB Interpretation (Proposed Interpretation), No.46, 2003.
- [27] Freeman, "Planning ideas under the new consolidated Sec. 382 regulations," The Tax Adviser Vol.28, 1987(4).
- [28] Jr. Hoffman, H. William, A. William, Raave, E. S. James, and M. M. Daviod, Corporations, Partnerships, Estates, and Trusts, West/South-Western Collage Publishing, 1999.
- [30] Financial Times, "Under new UK finance bill, Inland Revenue and allow groups of firms to pay taxes on a group-wide basis," Financial Times London Edition, 1998.
- [31] R. G. Walker and Mack, Janet "The Influence of Regulation on the Publication of Consolidated Statements," Abacus34(1).
- [32] Warner and C. James, Consolidated Returns : an analysis of stock basis, loss disallowance, and intercompany transactions, Little Brown, 1995.
- [33] Warner and C. James, Consolidated Returs Guide, CCH Inc, 2003.

저 자 소 개

박 상 봉(Park Sang-Bong)

정회원



- 1984년 2월 : 동의대학교 회계학과(상학사)
- 1999년 2월 : 동의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의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관심분야> : 경영학, 비즈니스